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386.6	16.2	118,500	-3.3	8.2	-8.5	-7.8	82.6	39.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228.0	21.1	321,000	0.6	3.0	-8.5	-7.2	4.3	3.6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94.9	6.0	19,400	-7.6	5.4	-28.9	-12.6	1.8	1.6	0.2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29.4	12.0	42,100	-1.6	-0.7	-16.6	-1.4	2.7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014.8	19.9	7,960	-0.3	4.1	-13.2	7.4	50.2	24.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425.2	12.2	31,950	-0.8	15.6	9.2	-6.4	11.2	11.2	0.9	0.8	9.0	6.9
현대미포조선	1,969.1	13.6	49,300	-3.5	-1.6	-15.6	-17.8	10.6	7.7	0.4	0.4	3.6	4.8
한진중공업	533.0	20.4	6,400	-0.8	-22.2	7.6	-22.7	128.7	32.1	0.9	0.9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41.5	21.4	89,900	-1.0	8.4	14.8	-16.0	15.9	15.4	2.2	1.9	14.6	13.3
두산밥캣	3,478.6	25.6	34,700	-0.3	8.8	11.9	10.2	12.7	12.0	1.0	0.9	7.4	7.6
현대로템	1,840.3	4.0	21,650	0.2	9.3	1.6	-22.3	27.9	19.0	1.2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28.0	46.8	16,750	1.8	-3.5	-14.5	1.8	7.6	6.9	0.6	0.6	8.8	9.0
성광밴드	308.9	18.7	10,800	-1.8	-0.9	-0.5	-5.3	954.7	38.7	0.7	0.7	0.1	1.8
태광	267.7	11.8	10,100	-1.5	-4.3	-11.4	-13.7	60.3	29.4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334.2	12.6	6,600	-0.5	4.3	-5.7	-21.4	-19.8	13.0	0.3	0.4	-0.1	4.5
두산인프라코어	1,371.8	16.9	6,590	-1.2	-0.9	-15.3	-13.2	4.5	4.9	0.7	0.6	17.7	13.2
HSD엔진	130.8	3.3	3,970	0.5	1.8	-17.1	-24.8	-10.4	-7.6	0.6	0.8	-4.7	-8.9
한국항공우주산업	3,465.2	16.9	35,550	-1.7	13.9	-4.0	11.4	51.9	23.2	3.1	2.9	6.1	12.8
한화테크윈	1,655.1	14.9	32,100	-0.6	7.7	-4.9	-1.2	133.0	25.6	0.7	0.7	0.6	2.8
LG넥스원	748.0	7.4	34,000	-2.6	-1.4	-10.5	-8.0	78.3	N/A	1.5	N/A	2.4	2.4
태웅	205.1	4.2	10,250	-1.0	9.7	-1.0	-2.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59.0	6.4	9,600	-3.7	-3.7	6.4	24.4	-20.3	14.9	3.5	2.8	-16.2	21.3
한국가본	378.9	15.4	8,620	-4.0	0.9	-0.9	22.4	134.2	28.3	1.2	1.2	0.9	4.3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韓 조선, 'LNG 최대' 카타르 수주전 개막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는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사업(NFE)에 투입될 LNG선 발주를 추진하는 QP에 입찰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확인됨. 입찰제안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수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소 40척이 발주될 계획이며,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국내 조선사가 모두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머니투데이)

VLCC 정기용선료 일일 4만번 출현

그리스 선주 NS레모스는 스위스 에너지회사 머큐리아와 31.9만DWT급 VLCC 1척을 3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함. 선박은 8월 스크러버 설치 개조공사를 마친 후 머큐리아로 인도될 예정. VLCC 일일 용선료는 4.3~4.35만달러로 알려짐. 스크러버 장착 프리미엄이 계약에 포함되며 용선료 가격이 높아졌다고 알려짐. (코리아슈핑가제트)

Big two ready for recovery

싱가폴 조선사 Keppel과 Sembcorp Marine은 Offshore 엔지니어링과 시추설비 시장에서 오랜 시간 downsizing을 마무리하고, 회복을 준비 중임. 두 회사는 2010년 초 상황이 좋을 때 대비해서 인력감축과 시설폐쇄를 겪어옴. Keppel은 FSRU, FLNG로 사업 다변화, 해양 시추회복에 1분기 직원 10,800명에서 1,8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밝힘. (Upstream)

Hunter agrees sale of first VLCC for eye-catching \$98m

Hunter Group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VLCC 8척 중 1척을 9,800만달러에 매각함. 동아시아 구매자에게 판매했고, 20%의 선수금을 받았다고 알려짐. 인도는 10월 31일 예정됨. 해당 선박은 스크러버를 포함한 적당 8,200~8,300만달러에 발주되었던 선박임. 이번 매각가는 2015년 초 이후 Resale 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함. (TradeWinds)

비싼 기름 대신 해운업계, 스크러버 설치 늘린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스크러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컨테이너선은 844척에 달함. 17년 11월 말 300척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전세계 컨테이너 선대 중 스크러버 설치하는 선박은 선복량 기준 36%에 달함. 대부분 저유황유를 사용할 전망이었으나, 스크러버 설치 계획이 증가함. 머스크도 스크러버 투자금액을 8천만달러에서 2.6억달러로 늘림. (머니투데이)

STX조선, 수주 선박 2척 계약 확정...신규 수주도 물꼬

STX조선해양은 18년 말 싱가포르 선사와 계약한 5만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의 RG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발급해 계약을 확정했다고 밝힘.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됨. 이번 RG 발급으로 STX조선해양의 수주잔량은 13척으로 증가함. 일감은 2020년 2분기까지 총 1년치를 확보함. (연합뉴스)